

빛의사람들

2018.11.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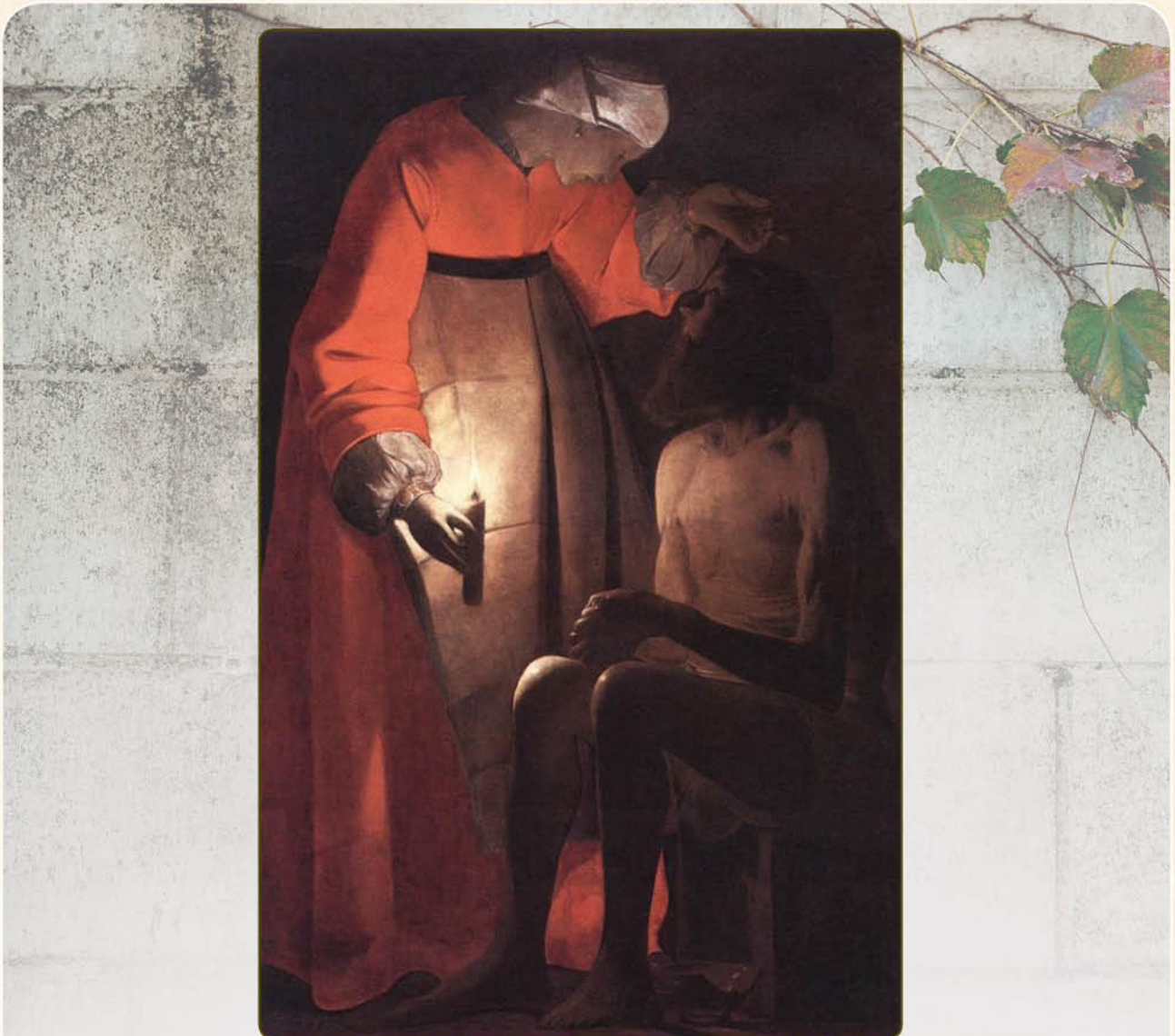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 02)921-5093 FAX : 02)921-7847 / E-Mail :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 www.catholic-correction.co.kr



조르주 드 라 투르, <성 옴과 그의 아내>, 1630, 캔버스에 유채, 145x97cm, 보주 박물관, 에피날, 프랑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욥기 1,21)



제20회 2018년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9월 7일(금) 제20회 2018년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30여명의 교육생들과 함께 하게 된 이번 교육의 첫날, 위원장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는 열린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9월 7일(금)부터 11월 30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12회기로 진행되는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으로 교육생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 57차 임시총회

9월 15일(토)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57차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장이신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을 비롯한 이사, 감사, 정회원분들과 기쁨과희망은행 점포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단 승인 건 등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10월 1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가톨릭회관 3층에서 부위원장 이상원 사도요한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이상원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우리는 수용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하느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후원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통해 움직이시는 하느님 말씀에 ‘예’하고 응답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하시는 하느님의 뜻과 사랑을 후원회원들 마음 속 깊이 기억하며 생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전체 직원 야유회

10월 12일(금)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직원연수가 강원도 철원에서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하며, 통일의 꿈을 함께 느껴보는 이번 직원 야유회는 ‘통일의 꿈을 싣고 달리는 평화열차 DMZ-train’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위원회의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사목국의 소속감을 확인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위령성월 - 회개로서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

강봉묵 마티아 /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신부

안녕하십니까?

위령성월을 맞이하니, 작년 광탄묘지에서 세상을 떠난 사형수들의 영혼을 위한 위령 미사와 묘원에서 추모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시 안내를 통해 사형수 형제들의 묘비에는 특별히 초록색 십자표식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안에서 교정 봉사자들과 후원회 회원들이 함께 묘지에 카펫처럼 깔린 알록달록 낙엽을 사복 사복 밟으며 사형수들의 무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마치 모두가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광탄묘지의 수많은 무덤 묘비의 작은 초록색 십자가를 찾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 단풍이 한창 무르익어 약간 들뜰 법도 했지만, 초록색 십자가가 새겨진 묘비를 찾아 그 무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깊은 침묵과 잠심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숙연한 마음으로 사형수들의 묘비에 새겨진 이름과 세례명을 마음에 새기며 그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작년 ‘광탄 사형수 위령 미사 및 연도’를 했던 순간을 회상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 하나하나가 ‘예수님 오른편에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던 착한 죄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죄인은 분명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기 전 땀으셨던 마지막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 영혼들, 즉 예수님 십자가 왼편에 있던 죄인과 같은 영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은 비단 회개하지 못한 사형수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회개를 미루다 죽음을 맞이한 망자들, 그리고 아직 살아있지만, 결정적인 회개를 미루고 있는 그 누군가의 영혼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11월 위령성월에 단순히 세상을 떠난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이 세상 모든 이의 결정적 회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감옥에 있는 수용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이 모든 사람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겨울이 빠르게 얼굴을 내미는 요즘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



롯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라틴교부들에 따르면 롯이란 이름은 ‘이탈,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롯이 무엇을 얼마큼 벗어났는지 살펴보면, 우리의 삶도 반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하란이 젊은 나이에 죽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돌보게 됩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이었기에,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처럼 애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았던 롯이었고, 정든 고향을 떠나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함께 길을 걸었던 롯이었지만, 재산이 많아짐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창세 13, 6-13). 첫 번째 벗어남은 아브라함에게서 분가함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아르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 롯은 요르단의 온 들판을 제 몫으로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요르단 들판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다. 롯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는데,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주님께 큰 죄인들이었다(창세 13, 10-13).

롯이 요르단 땅을 바라봅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동사는 하와가 선악과를 탐내서 바라볼 때 쓰인 동사입니다. 먹음직하고, 선악과가 자신을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보여 탐스러운 것처럼, 그 요르단 땅 역시, 자신을 더 부유해지게 해 줄 것 같고, 더 이상 물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듯 보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동산과 이집트 동산이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를 따라서 체험한 이집트의 물질 문명, 도시 문명, 화려함과 사치가 넘치는 그 생활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처지를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의 동산은 하느님과 함께 사는 낙원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아서 타락한 그 에덴동산의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롯은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고, 또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땅을 눈에 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두 번째 벗어남은 하느님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이고 편안한 생활에 젖어, 마치 롯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떠나고 하느님을 떠났듯이, 우리 역시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느님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떠난 롯을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하였는지 성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롯이 떠난 뒤 그 근방에서 여러 부족들이 연맹이 되어 전쟁이 일어나지만, 롯이 머무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임금들이 전쟁에서 참패하고, 롯은 잡혀가며 재물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칭하던 겁 많던 그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장정을 모아 그 부족들을 밤에까지 쳐내고 도망가는 길까지 쫓아가서 무찌르고, 롯과 그 재물을 되찾습니다(창세 14,14-16). 그렇게 구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이의 마음인가봅니다. 그렇지만 롯은 아브라함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고하고 떠나는 주님을 배웅하는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커서 걱정이라는 주님의 우려를 들은 아브라함은 그 안에 십 명, 마흔 다섯 명, 마흔 명, 서른 명, 스무 명, 열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보호해주시길 간청합니다. 그 열 명 안에 자신의 조카 롯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청도 눈물겹지만, 또한 조금이라도 구원의 여지를 주고, 또한 그 타락의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보는 하느님의 모습 역시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악의 현장으로 두 천사를 보내어 롯을 구하십니다. 이때 롯과 롯의 가족들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소돔이 망한다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여깁니다. 롯은 망설입니다. 망설이는 롯과 그 가족들을 천사들이 몸소 손을 잡고 그 성읍 밖으로 이끕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휩쓸리지 않으려거든 가능한 멀리, 저 산위로 가라고 지시하지만, 롯은 이마저도 흥정하여 최대한 가까운 성읍으로 피신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구하기 위해 천사들이 손을 내밀었지만 사위는 그 손을 저버렸기에 그 멸망 속에 휩쓸렸고, 간신히 벗어났건만, 악에 머물렀던 시간을 그리워하는 롯의 아내는 굳어버립니다. 과거를 그리워함은 그렇게 우리를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별을 어떻게 내리시느냐고 묻곤 합니다. 롯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통해, 천사를 통해, 그리고 당신이 직접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별을 택하고 머무릅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다가왔을 때, 롯이 천사를 알아보고 천사에게 행한 의식(창세 19,1-3)과 아브라함이 행한 의식(창세 18,2-8)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는 자녀를 약속받지만,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기에, 어떠한 형식의 제례를 잘못하였기에 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하느님을 ‘벗어나’, 물질과 타락을 의미하는 소돔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겠습니다. ■





대출 창업으로 인해 가족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8평 남짓한 깔끔하고 아담한 일본 라멘 전문 식당 주방에서는 사장님 내외분이 열심히 수제 어묵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좋은 연육인 생선 등 쪽 살과 전분을 섞어 고급 수제 어묵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라멘에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육수를 우려 면을 뽑아 만든 일본 라멘은 깔끔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거주지와 매장의 거리가 2시간이 넘게 걸려, 부인은 자녀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하시고 사장님은 근처 찜질방에서 숙박하며 새벽부터 가게에 출근해 매일 매일의 오픈 준비를 하십니다. 쉴 틈 없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현재 창업의 꿈을 실행 중인 대출자 송OO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 기쁨과희망은행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 2월 교도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기쁨과희망은행의 창업교육은 어떠셨나요?

5일 동안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어서 깊이가 없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교육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기쁨과희망은행 창업교육을 받고 실제로 창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창업교육을 받은 많은 것들이 아직 접목되지 않았습니다. 대출금이 적기도 하고 바로 받을 수 없어서 대출을 기다려야 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오픈하면서 홍보를 바로 해야 하는데 금액이 적어서 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과 협업이 된 점포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른 대출자들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 교육과 실제 창업과 차이가 좀 있었나요?

혼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희망은행 위원님과 진행 조율에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으로 진행이 되어 창업에 깊이 있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 이런 업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지난 10년 동안 백화점에서 라멘 식당을 했었기 때문에 출소 후에도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 창업을 하고 제일 힘들었던 점은? (어려웠던 점)

자금 부분이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산이 없어서 기쁨과희망은행과 협업 된 점포지원사업으로 적은 돈에 맞춰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이랑 매장이 멀고, 수제로 메뉴를 만들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 창업을 하고 제일 보람되었을 때는?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건 하느님이 주신 기회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육수를 내리고 어묵을 직접 만드는 게 손이 많이 가고 힘들지만, 손님들이 음식을 드시고 맛있다고 할 때 피곤이 가시고 힘이 납니다.

● 향후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SNS를 통해 주문받아 택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SNS 사업이 쉬울 수 있지만, 나이가 있어 쉽지가 않습니다. 배워보려고 하니 비용도 많이 들어서 향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 기쁨과희망은행에 바라시는 점은?

기쁨과희망은행 대출금이 후원회원들의 후원비로 운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힘들지만, 그분들의 조그만 후원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고 우리 가족들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서 더없이 감사합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2008년 6월 25일 창립하여 출소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대출 및 자본금 지원을 통해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릴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무담보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5일 동안 진행되는 창업기초교육을 수료하고, 창업기초교육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장실사를 진행 후,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창립 이후 194명에게 약 35억을 대출해 자활을 도왔습니다.

2018년 10월 22일(월)부터 제20기 기쁨과희망은행 창업 기초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동안의 아픔들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임리나 카타리나 / 고봉중고등학교 봉사자

성당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나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 건강하다, 밝다, 일 끝까지 잘한다, 젊은 자매가 참 예쁘게 봉사한다.’라고 칭찬을 하신다. 그 칭찬에 고래가 되어 춤을 추듯이 열정을 다하여 봉사했다. 그래서 길으로 보기에 참 착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듯하다. 나 또한 은근 뿌듯하고 약간의 우쭐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니 봉사를 하면서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졌던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집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그건 사고였다고 위안하며 그 잘못을 회색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동의를 받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쉽게 또 내 잘못된 행동을 웃으며 이야기하게 된 것 같다. 그런데, 듣고 있던 한 자매가 정색하며 “너 제정신이나. 어떻게 딸한테 그러고도 웃을 수 있느냐. 나랑 봉사 가자. 가서 네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는지,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딸이 얼마나 착한지 좀 깨달아야겠다.”라며 데리고 갔었던 곳이 고봉중고등학교(소년원)였다. 나에게서는 어떠한 사명감이나 교정 봉사자로서의 마음이 짐, 소년원 아이들에 대한 배려 등등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가 없었다. 그리고 한두 번 가보고 조용히 발을 빼야지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컸기에 쉽게 따라나섰던 것 같기도 하다. 봉사를 시작하고 가라앉아 있는 죄들 때문에 힘겨워지고 초라해지면서 길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속으로는 끊임없이 ‘내가 여기서 뭐를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거짓 없이,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큰 죄인은 나인데, 고봉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죄책감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래서 울었다. 내 안의 잠재되었던 죄들 때문에 힘겨웠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큰 반전이 있지는 않다. 봉사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실천하고 노력 중이다. 그러니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아이들에게 했던 못된 행동과 말들을 조심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사랑의 매는 사라졌고 대화를 하고 들으려고 애쓰고 있다. 여전히 마

음속에 가라앉은 죄가 있으며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있다.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반성하며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가 있던 그 날 자정이 넘는 시간, 고3이 된 딸아이의 짜증나는 행동과 말대꾸에 평소라면 참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화를 내면서 아이 방까지 따라가 책상 옆에 먼지 닦는 도구를 들어 책상에다 쿵쿵 소리 나도록 두들기고 아이를 때렸는지 후회가 된다. 아이 입술에서 피가 나자, 당황은 잠시 속에서 짜증이 올라왔다. 몇 대 때리지도 않았는데 하필 아이가 계속 피하다가 엉뚱하게도 얼굴에 닿아서 긁혔다고 생각하며 얼굴을 피해서 다리 쪽으로 힘을 가해서 또 때렸다. 그러다 아이 얼굴을 보니 심하게 피가 나왔다. 그제야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상처가 심한 듯하여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갔다.

담당 의사는 “어머니 여기는 성형 실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아이 입술 아래쪽으로 구멍 난 거 아니죠? 치아까지 골절 안 돼서 다행이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라고 말했다. 의사 얼굴에 나타나는 무언의 질책을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아이를 차에 태우고 좀 더 큰 병원 응급실로 가서 상처 치료하고 집으로 오기까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 자신이 사라져버린 시간이었다. 새벽에 집에 도착해서야 간신히 딸에게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했다. 병원에서도 울었던 딸이 울음을 멈추며 자기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가슴에 안기면서 또 울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 못했다. 울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 새벽 남편의 퇴근이 모든 것이 정리된 후였다는 건 나에게서는 정말 다행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 사고에 관해 설명을 들은 후 남편은 한동안 나와 말을 나누지 않았다. 내가 몹시 밉고 싫었던단다.

주님께서 고봉에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믿음으로 하는 봉사가 아닌 사람의 뜻대로 하는 봉사(욕심, 교만, 시기)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고래였을 것이다.

처음 글을 써야 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많이 망설였다. 봉사의 계기가 좋은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 잘못을 글로 아름답게 포장할 수도 없어서 피하고 싶었다. 그러다 생각했다. 이제는 잘못에 대한 고해를 다른 봉사자들에게도 하고 싶다고, 창피하지만 용서받고 싶다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라는 것을 고백하고, 마음속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고봉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아멘.



* 찬미 예수 *

김 도훈 라파엘 신부님

그리스도인이라 말 할 때는
수확만큼 자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선택했노라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물라게 혼란스러움을 식안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순히 하느님의 가르침을 수하노라고

라파엘 신부님

아직 평가는 못했지만 29일 축일을 축하드리고
환영의 글을 드리고자 합니다
루시아 수녀님께 조수는 전래들었고 얼마 안되어
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을 위하여 무주기도 30관을 올리겠습니다.
제시는 동안 좋은 기억이 많으시길 기도드립니다.

2018. 9. 23

정 야고보 드림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님께서 김도훈 신부님 부임 축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독을 위한 의자

홀로 있는 시간은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된다.

바쁘다고 밀쳐 두었던 나 속의 나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여럿 속에 있을 땐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무게를
고독 속에 헤아려 볼 수 있으므로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분별하며
내밀한 양심의 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으므로.

그래,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여럿 속의 삶을
더 잘 살아 내기 위해
고독 속에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다.

-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

마음의
달

(10)

양삼우
도로테아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표령들의 안식을 얻게 되소서!



후원알림마당

안내 말씀 드립니다

· 후원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 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반송우편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CMS 및 자동이체 후원을 권장합니다.

본 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과의 협약으로 전화신청만 하시면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 결제되는 후원금 자동 납부 방식인 CM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로 용지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빛의사람들’ 소식지를 이메일 발송해드립니다.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기 어려우시거나 우편비용의 절감을 원하시는 후원회원님께 이메일 발송을 해드리오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사업부: 02)921-5094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결 취 선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18년 12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저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12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9/11~10/10)

9월~10월에는 김해중 율리아노 형제님과 태현희 크리스티나 자매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하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행사 알림

- 11월 3일(토)~4일(일) 후원회원 모집 미사 / 반포4동 성당
- 11월 5일(월)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 광탄 나자렛 묘원
- 11월 8일(목)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11월 11일(일)~12일(월) 대표봉사자 야유회 / 강원도 인제
- 11월 16일(금)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16차 이사회 / 교정사목센터
- 11월 17일(토) 서울구치소 최고수 봉사자 교육
- 11월 30일(금) 세계 사형 반대의 날
- 9월 7일(금)~11월 30일(금) 제20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교육 / 교정사목 센터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후원신청서

| | | | | |
|-----------------------------|-----------------------------------|----------------------------------|----------------------------------|----------------------------------|
| 후원자 성명 | 세례명 | | | 영명축일 |
| 주소 | | | | |
| 연락처 | 이메일 | | | |
| 소식지발송 | <input type="checkbox"/> 우편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 |
| 후원금액 | <input type="checkbox"/> 5,000원 | <input type="checkbox"/> 10,000원 | <input type="checkbox"/> 20,000원 |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
| 금융기관명 | 이체일 | | <input type="checkbox"/> 5일 | <input type="checkbox"/> 15일 |
| 계좌번호 |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 | | |
| 예금주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 |
|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 | | | |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